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 / www.ccej.or.kr / Tel.02-765-9731 Fax.02741-8564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후원 008-01-0567-507(국민)/일시후원 #2540-1989(1통 3천원)

-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가슴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문의 : 정책실(윤철한 실장 02-766-5625)
- 시행 : 2019. 03. 14 (총 2매)

SK케미칼 임직원들 구속영장, 늦었으나 환영한다 SK케미칼·애경산업 증거인멸에 김앤장 관여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19.2.28. 기준 접수 피해자 6,309명(11명) · 이 중 사망자 1,386명¹⁾

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14일) 열린다고 한다. 피해자들과 가슴기넷은 법원이 SK케미칼 임직원들에 대해 뒤늦은 구속영장 청구조차 잘못됐다고 오판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2.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가슴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모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K케미칼 임직원들의 혐의가 다름 아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라는 점에서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3. 피해자들과 가슴기넷은 참사의 정점에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고 누차 외쳐 왔다. 그러나 모든 가슴기 살균제의 원료를 만들어 유통시킨 SK케미칼은 이전까지 형사·행정 처벌은 물론, 수사조차 빗겨 갔다. SK케미칼·애경산업 임직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증거인멸 과정에 김앤장과 그 변호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했으리라 의심하는 건 매우 합리적이다. 김앤장이 가해기업들에 대해 적법한 법률 대리를 넘어 불법적 증거인멸까지도 개입했는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김앤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끝]

1)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접수 현황 가슴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안은 2019년 2월 22일 대비 피해 증감 현황